

한·브루나이 정상회담 의미와 신남방정책 협력과제

박나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(nypark@kiep.go.kr, Tel: 044-414-1245)



차 례

1. 머리말
2. 한·브루나이 경제협력 현황
3. 한·브루나이 정상회담 주요 성과
4. 신남방정책과 한·브루나이 경제협력 방안

주요 내용

- ▶ 2018~21년 한·아세안 대화조정국인 브루나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순방지로 방문하면서 브루나이는 신남방정책 구현과 한·아세안의 관계발전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재조명됨.
- ▶ 원유·천연가스 중심의 자원 부국인 브루나이는 아세안 국가 중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왔으나 높은 자원 의존도로 인해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에 따라 한동안 마이너스 경제성장세를 이어오다가 2017년부터 회복세를 보임.
 - 수출 비중은 GDP 대비 약 50%를 차지하는 가운데 브루나이의 주요 수출품목은 원유·천연가스가 포함된 광물성 연료로 그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약 90%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임.
- ▶ 1984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한·브루나이 양국의 경제협력은 한국의 원유·천연가스 수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음.
 - 2018년 한국 전체 교역액 1조 1,400억 달러 중 대(對)브루나이 교역액은 0.06%인 약 6억 7,000만 달러를 기록
 - 2018년 브루나이로부터 수입한 전체 금액 6억 달러 중 LNG 및 원유에 대한 수입은 5억 9,0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98%를 차지함.
- ▶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투자환경 개선, 지식재산권 및 과학기술 협력 강화, LNG 벨류체인, 석유·가스 다운스트림,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공동 역량개발 등 협력 관계 다각화를 공고히 함.
 - 한·브루나이는 그동안 원유·천연가스 교역 중심의 단순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해왔으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투자 및 인프라 개발, LNG 벨류체인, 과학기술, 핀테크, 지식재산권, 국방분야 등 협력 확장을 위한 기회를 모색함.
 - 브루나이 경제는 원유 수출의존도를 줄이고자 석유·가스 산업의 다운스트림, 과학기술, 이슬람금융, 할랄산업, 중소기업 등 발전을 통한 경제다각화를 꾀하고 있으며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함.
- ▶ 브루나이는 앞으로 원유 생산 증가 및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률이 전망되는바, 인프라 건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양국의 공동 관심분야인 LNG 벨류체인과 석유 다운스트림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.

1. 머리말

■ 2018~21년 한·아세안 대화조정국인 브루나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첫 해외순방지로 방문하면서 브루나이는 신남방정책 구현과 한·아세안의 관계발전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재조명됨.

-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양자차원에서 19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2018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한·브루나이 정상회담 이후 4개월 만에 이루어짐.
- 2019년은 한·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하여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‘한·아세안 특별정상회의’ 등을 비롯하여 향후 아세안과의 관계발전을 위해 한·아세안 대화조정국인 브루나이와 긴밀한 협업과 소통이 필요함.
- 아세안 헌장(Charter) 42조항에 따르면 대화조정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아세안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화관계 상대국과 수시로 업무를 협의 및 조율하기 위해 3년 동안 대표 역할을 수행함.

■ 브루나이는 타 아세안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교역규모와 비중 면에서 모두 미미하나 원유·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하여 한·브루나이는 천연자원 교역을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음.

- 한국은 일본에 이어 브루나이의 2대 수출대상국으로 원유 및 LNG를 주로 수입하고 있으나, 그 규모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양국 협력은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음.
- 브루나이는 원유·천연가스 산업이 GDP의 약 54%(2017년 기준)를 차지할 정도로 천연자원 부국이나, 자원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아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받음.
- 2019년은 한·브루나이 외교수립 3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, 이번 양국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투자·특허·과학기술 관련 MOU를 체결, 양국의 협력관계 증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며 향후 협력 강화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함.

■ 이 글에서는 브루나이 경제 및 한·브루나이 경제협력 현황, 한·브루나이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을 살피고 신남방정책과 브루나이의 주요 국가발전 비전 및 정책을 분석하여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함.

- 한국은 아세안을 신성장동력 모색을 위한 주요 파트너로 여기며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하기 위해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.
- 그동안 브루나이는 작은 경제규모의 국가로 한·아세안 협력관계에서 주변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3년간 한·아세안 대화조정국을 수임하는 브루나이의 장기 국가발전 비전 및 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연계시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함.

2. 한·브루나이 경제협력 현황

가. 브루나이 경제 현황

- 원유·천연가스 중심의 자원부국인 브루나이는 아세안 국가 중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왔으나 높은 자원 의존도로 인해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에 따라 한동안 마이너스 경제성장세를 이어오다가 2017년부터 회복세를 보임.
- 브루나이는 원유·천연가스 산업이 GDP의 1/2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자원의존도가 높으며 2013~16년 국제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인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함.
- 2011년 1인당 GDP가 약 3만 4,000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다가 2017년부터 에너지가격이 상승 하면서 경제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 2018년에는 3만 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추정됨.

표 1. 브루나이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(2010~18년)

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	2016	2017	2018
실질 GDP(증가율, %)	2.60	3.75	0.91	-2.13	-2.35	-0.57	-2.47	1.33	2.00
명목 GDP(십억 달러)	13.71	18.52	19.05	18.09	17.10	12.93	11.40	12.13	12.68
1인당 실질 GDP(달러)	33,441	34,222	34,039	32,825	31,588	30,969	29,802	29,811	30,030
총인구(만 명)	39	39	40	41	41	42	42	43	43
인구 증가율(%)	0.27	0.28	0.29	0.29	0.30	0.30	0.31	0.31	0.31
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(%)	1.27	1.38	1.46	1.49	1.48	1.42	1.35	1.30	1.25
경상수지/GDP(%)	36.60	34.71	29.84	20.88	30.71	16.68	12.90	16.66	10.20
상품수출액(백만 달러)	8,887	12,464	12,981	11,436	10,616	6,354	4,913	5,587	6,372
상품수입액(백만 달러)	2,527	3,588	3,546	3,594	3,574	3,230	2,664	3,082	4,799
FDI 순유입액/GDP(%)	3.51	3.73	4.54	4.29	3.32	1.32	-1.32	3.86	-
외환보유액(백만 달러)	1,563	2,591	3,449	3,575	3,648	3,367	3,489	3,488	3,407
환율(브루나이 달러/\$, 평균)	1.36	1.26	1.25	1.25	1.27	1.37	1.38	1.38	1.35

주: 1) 추정치는 음영 표시.

2) 2018년 GDP 대비 FDI 순유입액은 미발표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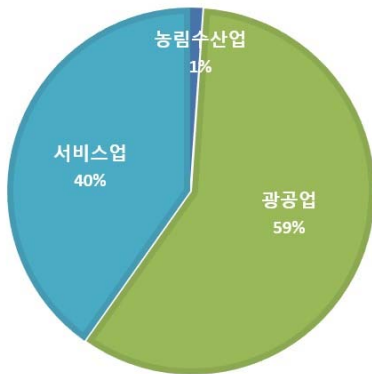
자료: IHS Markit(검색일: 2019. 3. 15); IMF DOTS(검색일: 2019. 3. 15); IMF IFS(검색일: 2019. 3. 15); World Development Indicator(검색일: 2019. 3. 15).

- [산업] 브루나이는 광공업이 GDP의 약 59%를 차지하고 서비스업은 40%로 그 비중이 두 번째로 높으며 농림수산업은 GDP의 1% 수준으로 매우 낮음(그림 1 참고).
- 광공업 중 원유·천연가스 관련 산업은 GDP의 54%를 차지하며 그동안 브루나이 경제성장을 견인해옴.
- 원유·천연가스 산업은 2011년 GDP의 70%까지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원유·천연가스 생산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브루나이 정부의 산업다각화 추진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.

- 서비스업 비중은 2012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7년 소폭 하락함(그림 2 참고).
 - o 2017년 서비스업 중 정부서비스 및 공공행정 부문은 12%, 금융과 도소매업은 각각 6%, 5%를 차지함.
- 농림수산업 비중은 2015년부터 증가 추세이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%로 매우 미미함(그림 2 참고).

그림 1. 산업별 GDP 비중(2017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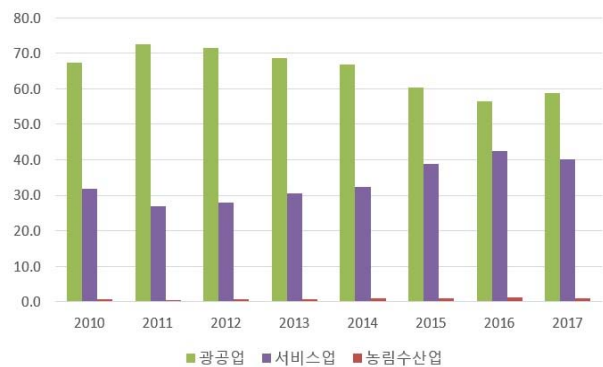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자료: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경제개발국(검색일: 2019. 3. 13).

그림 2. 산업별 GDP 비중 추이(2010~17년)

(단위: %)



자료: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경제개발국(검색일: 2019. 3. 13).

■ [수출] 수출비중은 GDP 대비 약 50%¹⁾를 차지하는 가운데 브루나이의 주요 수출품목은 원유·천연가스가 포함된 광물성 연료로 그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약 90%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임(그림 3 참고).

- 2017년 브루나이 전체 수출액 약 56억 달러 중 대일본 수출은 약 17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인 30%를 차지함.
- 브루나이의 대한국 수출은 약 8억 달러로 14%를 차지하며,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2대 수출 대상국임.
 - o 그 외 수출대상국은 말레이시아(11.2%), 태국(11%), 인도(9.8%), 싱가포르(7.6%) 등의 순으로 집계됨(그림 4 참고).

■ [수입] 2017년 브루나이의 총 수입액은 약 31억 달러를 기록, 산업 기반이 약한 기계 및 운송장비(34%), 공산품(24%), 식품(13%)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음.

- 특이한 점은 브루나이의 최대 수출품인 광물성 연료에 대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입액이 2010년 5,000만 달러에서 2017년 2억 6,000만 달러로 5배 이상 증가함.²⁾
- 브루나이의 주요 수입대상국으로는 중국(21%), 싱가포르(18%), 말레이시아(18%), 미국(9%), 독일(6%), 영국(4%), 일본(4%), 한국(3%) 등이 있음.

1)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경제개발국(검색일: 2019. 3. 13).

2) 브루나이는 원유 가공시설 부족 및 원유 생산량 감소 등으로 광물성 연료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.

그림 3. 브루나이 주요 수출품목 구성(2017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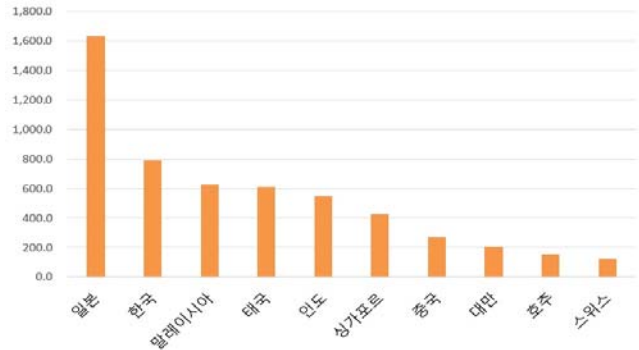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자료: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경제개발국(검색일: 2019. 3. 13).

그림 4. 브루나이 주요 수출국(2017년)

(단위: 백만 달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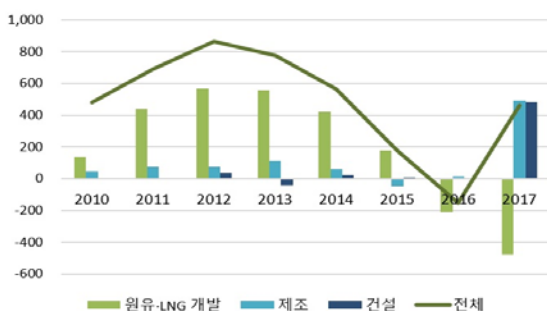
자료: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경제개발국(검색일: 2019. 3. 13).

■ [투자]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2012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가 이어져 2016년에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순직접투자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 제조업 및 건설업에 대한 투자 증가로 회복됨(그림 5 참고).

- 원유·천연가스에 대한 투자 증가로 2012년 대브루나이 외국인직접투자는 6억 달러를 넘어섰으나, 가장 큰 투자국이었던 영국이 2016~17년 원유·천연가스 부문 투자 회수에 나서면서 브루나이의 순직접투자액 마이너스 기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.
- 원유·천연가스 생산시설이 노후되었고 천해(Shallow Water)의 원유 탐사가 상당 부분 완료되면서 브루나이의 원유 생산량이 감소(그림 6 참고)하고3) 20년 뒤 원유·천연가스 매장량 고갈에 대한 우려가 있어 원유·천연가스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감소함.
- 2017년 제조업 및 건설업에 대한 투자 증가는 브루나이 정부가 천연자원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다각화를 위해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 건설추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.
- 2017년 외국인직접투자 전체 유입액 중 말레이시아와 홍콩이 각각 46%, 44%를 차지하며 주요 투자국으로 부상함.

그림 5. 브루나이 FDI 추이(2010~17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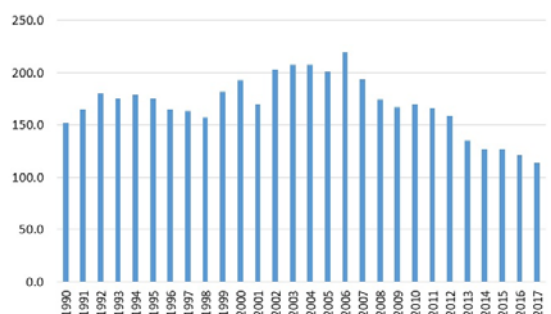
(단위: 백만 달러)



자료: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경제개발국(검색일: 2019. 3. 13).

그림 6. 브루나이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 추이 (1990~2017년)

(단위: 1,000 배럴)



자료: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경제개발국(검색일: 2019. 3. 20).

3) 미국 에너지정보국(2017), "Brunei Overview," <https://www.eia.gov/beta/international/analysis.php?iso=BRN>(검색일: 2019. 3. 27).

나. 한·브루나이 경제협력 현황

■ [교역] 1984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한·브루나이 양국의 경제협력은 한국의 원유·천연가스 수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교역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임.

- 2018년 한국 전체 교역액 1조 1,400억 달러 중 대브루나이 교역액은 0.06%인 약 6억 7,000만 달러를 기록, 수출과 수입비중은 각각 0.01%, 0.11%로 매우 낮음.
- 다른 아세안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2018년 한국의 대브루나이 무역규모는 아세안 10개국과의 총 교역액 약 1,600억 달러 중 0.42%에 불과하며 수출은 0.06%, 수입은 1.02%를 차지하며 낮음.
- 2018년 한국의 대브루나이 주요 수입품목인 LNG는 전체 한국 LNG 수입액 중 1.5%인 약 4억 달러, 원유는 0.3%인 약 2억 달러임.
- 중량 기준으로 한국은 LNG 70만 톤, 원유 43만 톤을 수입하며 한국의 각 전체 수입중량에서 각각 1.6%, 0.3%를 차지함.
- 2018년 브루나이로부터 수입한 전체 금액 6억 달러 중 LNG 및 원유에 대한 수입은 5억 9,0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98%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나,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수입량과 수입액은 모두 감소하는 추세임(표 2, 그림 7 참고).
- 2018년 LNG 및 원유 수입액은 각각 3억 5,000만, 2억 4,0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58%, 40%를 차지함.
- 2018년 한국은 브루나이로부터 원유, LNG, 메탄올 등을 수입하였고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주요 수입 품목은 LNG와 원유로 큰 변동 없음.

표 2. 한국의 대브루나이 주요 수입 품목(2018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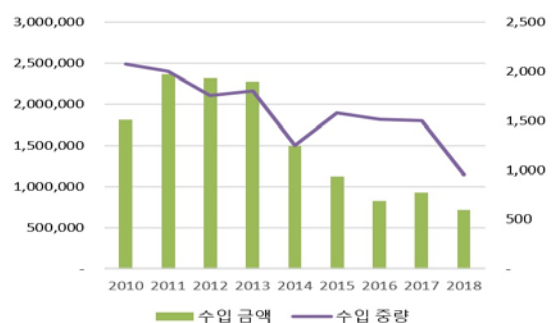
(단위: 톤, 백만 달러, %)

순위	HS 코드 (6자리)	품목명	중량	금액	금액 비중
1	271111	LNG	705,159	351	58%
2	270900	원유	438,937	242	40%
3	290511	메탄올	18,331	7	1.1%
4	854810	1차전지	8,119	8	1.3%

주: 순위는 중량 기준
자료: 한국무역협회 K-stat(검색일: 2019. 3. 14).

그림 7. 한국의 대브루나이 광물성 연료(HS 27) 수입 추이(2010~18년)

(단위: 톤, 백만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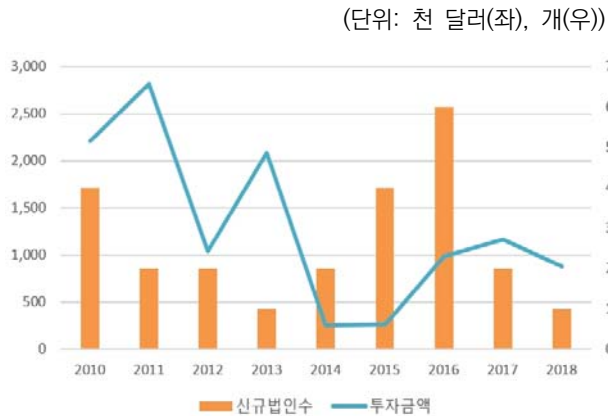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무역협회 K-stat(검색일: 2019. 3. 14).

■ [투자] 한국의 대브루나이 투자는 2018년 기준 88만 달러를 기록, 280만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한 2011년과 비교했을 때 투자액이 약 70% 감소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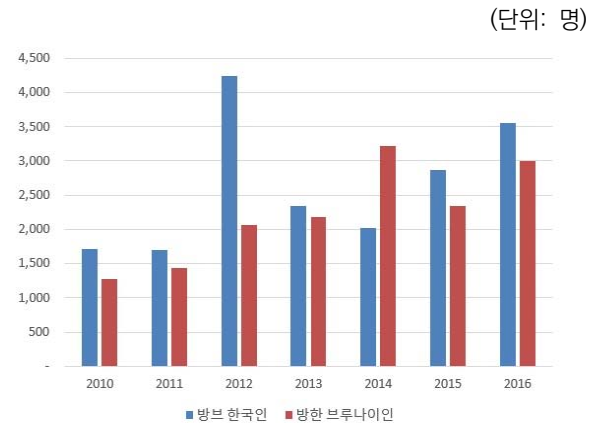
- 주요 투자업종은 건설업, 제조업, 도매 및 소매업, 농림업이나, 연도별 투자 집중 분야가 크게 변화함.
- 연 1~6건의 현지법인 설립이 대브루나이 전체 투자규모를 결정하고 있음(그림 8 참고).
- 2018년 브루나이 내 신규법인 개설은 1건으로 도매 및 소매업에 투자되었으며 2017년에는 제조업, 2016년에는 건설업, 과학, 농림업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짐.

그림 8. 한국의 대브루나이 해외직접투자 추이 (2010~18년)


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(검색일: 2019. 3. 14).

그림 9. 한국-브루나이 인적 교류 추이 (2010~16년)



자료: CEIC(검색일: 2019. 3. 20).

■ [건설·인프라] 1970~2018년 우리나라 28개 기업이 총 58건의 건설사업을 수주하였으며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에는 한국기업이 모두 철수하였으나 2010년 브루나이 주택개발청의 사업 수주를 계기로 기업 진출이 재개됨.⁴⁾

- 2013년 한국 기업은 브루나이 최초의 사장교인 약 1억 달러 규모의 브루나이 리파스 대교 건설을 수주함.
- 2015년에는 동서 두 개 지역으로 나뉜 브루나이 영토를 연결하는 중요한 인프라 사업인 템부롱(Temburong) 교량 일부 2개 구간 건설을 수주함.
- 약 6억 달러 사업으로 한국 기업이 수주한 사업 중 역대 가장 큰 규모임.

■ [인적교류] 브루나이 내 한류열풍, 한국-브루나이 직항노선 증편, 건설수주에 따른 업체직원 및 가족의 방문 증가 등으로 인해 양국 방문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.

- 2016년 한국을 방문한 브루나이인은 2015년 2,345명에서 28% 증가한 2,997명, 브루나이를 방문한 한국인은 2015년 2,871명에서 3,551명으로 24% 증가함.
- 한국-브루나이 직항노선은 2016년 12월부터 주 2회로 개설되었으며 2018년 주 3회, 2019년 4월부터는 주 4회로 증편될 예정으로 양국 방문자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
4)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(검색일: 2019. 3. 15).

3. 한·브루나이 정상회담 주요 성과

-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투자환경 개선, 지식재산권 및 과학기술 협력 강화, LNG 벨류체인(Value-chain),⁵⁾ 석유·가스 다운스트림(downstream),⁶⁾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공동 역량개발 등 협력 관계 다각화를 공고히 함.
- 양국은 지난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'신남방정책'과 '브루나이 2035 비전'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함.
- 양국의 긴밀한 관계발전을 위해 △투자 △특허 △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 관련 MOU 3건을 체결하고, 24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공동성명을 채택함(표 3, 표 4 참고).
-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2018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한·브루나이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건설·인프라, ICT 분야 등 협력 강화 내용을 투자, 특허, 과학기술 분야까지 확대함.
- 브루나이는 인구 43만 명의 작은 나라로 아세안 회원국 중 한국과의 협력이 정체되어왔으나,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지로 한·아세안 대화조정국인 브루나이를 19년 만에 방문한 것은 아세안 모든 회원국과의 협력관계 확대·강화 및 신성장 동력 발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로 해석됨.

표 3. 한·브루나이 체결 MOU 주요 내용

	분야	주요 내용
1	투자	- 자원, 기술, 혁신산업, 식품가공 등 분야에서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등 협력
2	특허	- 한국 특허청을 특허협력조약 ⁷⁾ 하 국제조사기관(ISA: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)으로 지정
3	과학기술	- 과학기술 공동 관심분야(과학기술 정책, 식품 과학, 바이오, 재생에너지 등) 협력 강화

자료: 청와대 홈페이지(검색일: 2019. 3. 21).

- 한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브루나이의 한·아세안 대화조정국 역할을 지지하면서 신남방정책의 핵심 원칙인 사람(People), 번영(Prosperity), 평화(Peace) 3P에 입각하여 아세안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조함.
- 브루나이 불키아 국왕은 한·아세안 관계를 보다 심화해 나가기 위한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진전과정에서 한국 역할을 평가하며 우호적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관련국 간의 협의 및 협력 노력을 지지할 것을 명시함.

5) 천연가스 탐사 및 개발, 생산부터 운송, 소비까지 기업활동 전반을 일컫음. SK E&C 홈페이지, <http://www.skens.com/m/kr/sk/content/popup.do?cate=company&m1=cardlist&m2=card4>(검색일: 2019. 3. 27).

6) 원유·천연가스의 다운스트림(downstream) 산업은 정유, 석유화학 플랜트, 석유제품 유통, 소매 및 천연가스 배급회사 등을 포함하는 한편, 업스트림(upstream) 산업은 원유·천연가스 탐사 및 개발, 생산을 포함함. 캐나다 석유서비스협회 홈페이지, <https://www.psc.ca/business/industry-overview>(검색일: 2019. 3. 27).

7) 특허협력조약(PCT: Patent Cooperation Treaty)은 특허에 관한 해외 출원 절차의 통일화와 간소화를 위해 발효된 다자 조약으로 국제특허심사 전 국제조사를 통해 특허성 여부를 검토하는데 이번 MOU를 통해 우리나라 특허청이 국제조사를 수행하게 됨. 아세안 국가 중 필리핀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, 태국에 이어 7번째임. 특허청 홈페이지, http://www.kipo.go.kr/kpo/user.tdf?a=user.html.HtmlApp&c=80784&catmenu=m04_01_06(검색일: 2019. 3. 21).

표 4. 한·브루나이 공동성명 주요 내용

조항	주요 내용
7	- 양국의 국가전략인 '신남방정책'과 '브루나이 비전 2035'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잠재적 기회 공동 모색
8	- 통상 및 투자, 인프라 개발, 연계성, 인적교류, 국방협력 분야의 공조 강화 - 특히 교육, 농업, 할랄산업, 관광, 에너지, 중소기업, 핀테크, 과학기술, 정보통신, 스마트시티 및 지적재산권 분야로 협력 확장을 위한 기회 모색
11	- 석유·가스 산업 업스트림(upstream) 및 다운스트림(downstream), LNG 벨류체인 등 협력 강화
13	- 지속되고 있는 전자정부 분야의 협력 주목, MOU 갱신 협의 진행 환영
16	- 상호 이해와 우의 증진을 위한 인적교류 협력 강화
17	- 2018년 체결된 국방협력 MOU를 토대로 방산 및 국방기술 분야의 긴밀한 협력 모색

자료: 청와대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저자 정리.

- 한·브루나이는 그동안 원유·천연가스 교역 중심의 단순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해왔으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투자 및 인프라 개발, LNG 벨류체인, 과학기술, 핀테크, 지식재산권, 국방 분야 등으로의 협력 확대를 모색함.
- 브루나이 경제는 원유 수출의존도를 줄이고자 석유·가스 산업의 다운스트림, 과학기술, 이슬람 금융, 할랄산업, 중소기업 등 발전을 통한 경제다각화를 꾀하고 있으며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함.
- 한국은 새로운 분야 협력 확대로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브루나이를 교두보로 하여 아세안 진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.

4. 신남방정책과 한·브루나이 경제협력 방안

- 브루나이 정부는 경제·산업 다각화 모색을 위해 '브루나이 비전 2035'를 발표하며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및 진출을 기대하는바, 한국정부는 교통·에너지·수자원 등 신남방정책의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브루나이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- 브루나이는 원유·LNG에 대한 과도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 장기 국가비전인 '브루나이 비전 2035'를 발표함.
 - '브루나이 비전 2035'는 △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좋은 교육을 받은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△2035년 까지 삶의 질을 세계 10위권으로 향상시키며 △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으로 1인당 소득 세계 8위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함.⁸⁾
 - 비전 실현을 위해 △교육 △경제 △안보 △제도 △지역사업 △인프라 개발 △사회보장 △환경 △보건 △종교 △토지사용 △인프라 및 정보통신 기술 △인력계획인 13개 주요 전략분야를 선정함.⁹⁾
- 장기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브루나이 정부는 5년마다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8년 6월

8) 브루나이 대사관 홈페이지, <http://www.bruneiembassy.org/brunei-vision-2035.html>(검색일: 2019. 3. 21).

9) 브루나이 정부 홈페이지, <https://www.gov.bn/SitePages/Wawasan%20Brunei%202035.aspx>(검색일: 2019. 3. 21).

개발부는 ‘2018~2023 정책 프레임워크(Policy Framework)’를 발표함.

- 개발부는 ‘브루나이 비전 2035’ 중 인프라, 토지사용, 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춰 주택, 도로, 상하수도 시설, 건설, 인프라 파이낸싱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인프라 개발에 대한 수요는 커질 것으로 전망됨.

■ 한국과 브루나이는 양국의 공동 관심분야인 LNG 벨류체인과 석유 다운스트림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음.

- 이번 한·브루나이 공동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원유·천연가스 단순 도입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가스 전 탐사 및 생산부터 액화, 수송,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인 벨류체인 참여로 협력관계를 확대하고자 함.
- 우리나라는 2018년 3월 LNG 계약이 종료된 상태로,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8년 11월 브루나이 자원개발 국영기업인 페트롤리움 브루나이(Petroleum Brunei)와 LNG 벨류체인 사업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, 구체적인 사업 발굴을 협의 중임.
- 브루나이 정부 또한 원유·가스 개발 및 생산부문에 있어 나아가 정제, 수송, 판매까지 아우르는 다운스트림 사업을 강화하여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경제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어 관련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가 기대됨.

■ 브루나이는 앞으로 원유 생산증가 및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률이 전망되는바, 인프라·건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모색이 필요함.

- 브루나이는 2016년까지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, 2017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힘입어 GDP 성장률이 2019년 5.8%, 2020년 7%, 2021년 8%를 달성, 정부재정 증가가 전망됨.¹⁰⁾
- 2019년 브루나이 동서 영토를 잇는 템부롱(Temburong) 교량이 완공된 이후 그동안 개발되지 않은 템부롱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·건설 사업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.
- 브루나이 정부는 무역 증진을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CPTPP)에 가입하였고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통신 및 교통 인프라 개선, 법인세 인하 등 기업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음.
- 브루나이의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(Ease of Doing Business) 순위는 2016년 84위 → 2017년 72위(12단계 상승) → 2018년 56위(16단계 상승)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.

■ 우리 정부는 에너지자원 및 에너지수송 해상교통로 확보와 더불어 같은 이슬람 문화권인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 등 주변 시장으로의 진출 등을 고려하여 브루나이 정부와 정기적인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 진출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.

- 일본은 2007년 브루나이와 경제협력협정(EPA)을 체결하였으며, 일본 미쓰비시(Mitsubishi Corporation)는 브루나이의 LNG 생산 및 판매기업인 ‘브루나이 LNG’와 ‘Brunei Coldgas’ 지분의 25%를 보유하면서 LNG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함.

10) IHS Markit(2019), "Country Report: Brunei."

- 일본은 브루나이 정부와 20년 장기공급 계약이 완료된 2013년, LNG 공급계약을 10년 재연장함.
- 아울러 2017년에는 브루나이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소 공급망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면서 2020년부터 브루나이 수소가 일본으로 수출될 예정임.¹¹⁾
-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 일환으로 브루나이 대표 석유 다운스트림 산업단지인 플라우 무아라 브사르(Pulau Muara Besar) 내 정유 및 석유화학플랜트 설립에 투자함.
- 석유 다운스트림 산업단지 투자는 34억 달러의 브루나이 역사상 가장 큰 외국인투자 규모로 2019년 1단계 완공된 후 하루 175,000배럴의 원유 정제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기업은 이외에도 교량, 고속도로, 댐 건설 등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.¹²⁾ KIEP

11)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, <https://www.mofa.go.jp/mofaj/area/brunei/kankei.html>(검색일: 2019. 3. 25).

12) "China and Brunei get down to business"(2018. 12. 11), 온라인 기사(검색일: 2019. 3. 25).